

도시기억아카이브

# 청수장 아카이브 프로젝트

청수장 아카이브 프로젝트

도시기억아카이브

사진  
김선홍  
김인숙  
박승규  
글  
정진

도시기억아카이브

**청수장  
아카이브  
프로젝트**

청수장이 사라지기전, 2023년의 모습을 담아 기록에 남기려 합니다. 1971년 개장한 이후 지역의 주민들과 전국의 온천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청수장이 과거의 모습을 정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수장 2023' 사진집은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청수장의 모습과 청수장과 함께하며 추억을 간직한 주민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 청수장 2023

## 도시기억아카이브

### 김인숙

유항온천 물이 땅에서 솟아나기 위해서는 활발한 지열활동과 지하수의 풍부한 미네랄, 지하수의 온도와 특성 등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청수장이 인기를 얻었던 시절에는 땅 속에서 솟아져 나온 뜨거운 유항 온천수와 고객을 받기며 아껴주었던 직원들의 따스한 마음, 그리고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생활의 터전을 마련한 주민들의 노력이 삼박자를 이루었던 덕에 국민관광지로 명성을 알릴 수 있었을 겁니다. 오래된 건물은 그 건물이 가진 사람들 과의 추억과 기억 만으로도 건물이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주는 큰 힘이 느껴집니다.

70년대 후반 호황을 누리던 청수장은 국가보양온천으로 지정되면서 온천관광으로 찾는 사람들이 도고온천역부터 기곡리까지 이어졌었다고 당시를 살았던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경영난으로 몸살을 앓던 청수장은 주인이 여러번 바뀌면서 30여년간 과거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방치된 공간으로 남았고 마을주민들의 입을 빌어 고독에 지친 청수장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2021년 아산시가 청수장을 매입해 도고온천지역의 역사문화와 장소성을 살리고 지역주민, 상인, 청년이 함께하는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상권활성화를 통해 과거 활기찼던 청수장의 변모를 되찾고 주민들의 지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위안과 힐링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수장 2023의 책자를 기획하고 사진을 기록으로 담고 있는 김인숙 작가는 사라져가는 도시를 아카이빙 하는 ‘도시 기억 아카이브’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정기적인 사진전시회를 통해 축소도시의 기억을 알려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멘트 MOMENT’라는 아산 지역 사진 아카이브 단체를 만들어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지역의 사라져가는 도시기억을 사진으로 담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첫번째 전시회로 ‘도고온천 도시기억아카이브’ 사진 전시회를 도고와 배방의 두곳에서 진행했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어요. 전시회 기간동안 매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죠. 사진을 보고 옛 시절을 추억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이 작업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산이 가진 지역의 특징과 옛 기억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시 기억의 과거, 현재, 미래를 꾸준히 사진으로 담아 전시회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김인숙 작가의 얼굴에 보조개가 생깁니다.

“10년 넘게 도시를 기록하는 사진을 찍었어요. 어린시절 아버지가 비디오로 가족들의 일상을 기록하고 영화로 만들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했거든요. 저에게 사진은 가장 가까운 연인이자 위로와 축제가기도 하고 사람들과 마음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고 있어요.

오래된 도시, 사라져가는 도시를 보면 그 도시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요.”

삶터이자 일터인 도시가 쉼터로도 함께할 수 있도록 모멘트 MOMENT 는 도시의 기억을 담아 전하는 일을 이어가려 합니다. 도시기억 아카이빙,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옆, 우리의 도시입니다.



Decorative white pattern on the brick chimney.

은천교회

## 역사 속의 도고온천

도고온천의 명칭은 아산시 남서부에 위치한 도고산(道高山)에서 비롯되었다.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물탕마을(기곡1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도고온천의 본격적인 개발은 1921년 사금을 채취하던 일본인이 바위틈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유황온천’으로 개발하면서부터다.” <지역N문화에 실린 ‘한국의 샘과 약수 ‘신라시대부터 다양한 설화가 전해지는 충남 아산시의 도고온천’, 최명환 저> 라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1933.3.26>에는 ‘영천으로 명고한 아산도고온천 제반설비 완비’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으며, 내용 중에 ‘아산은 영천이 많기로 유명한 곳인바 도고면 신영천은 지금으로 부터 4년 전에 발견이 된바”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구온천이 이미 있었고 신온천의 발견시점을 1929로 추정할 수 있다.

‘아산도고온천 간이역을 설치’ <매일신보, 1933.9.22> 기존 경남철도 충남선을 타고 선장역에서 내려 도고온천까지 걸어서 가는 불편함이 있어 지역주민이 철도회사에 간이역 설치를 요구했고 1933년 10월 1일부터 간이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고온천 호평’ <부산일보, 1934.5.31> “도고온천은 공기가 신선하며 한적하여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적, 서민대상 숙박료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저렴해 욕객이 항상 끊임 없이 찾아와 만원 상태다”라고 소개한다.

‘도고온천 관광 교통 크게 불편’ <경향신문, 1973.10.31> 박영원(충남 아산군 도고면 기곡리 도고온천 163)이라는 사람이 제보한 내용으로 “유황온천으로 널리 알려진 이곳 도고온천에는 욕객을 비롯해 관광객들이 하루에도 200~300명씩 몰려든다.” 는 내용이다.

‘온천 러쉬 스트레스 해소.관광도 함께’ <경향신문, 1974.12.12> 수안보. 도고 1박2일 코스로 인기, 약수터로 알려진 명소 도고 전국에서 개발된 온천은 13개소. 이중 1박2일 코스인 수안보온천과 도고온천은 주말마다 인파가 몰리고 특히 최근 목욕탕의 휴업위협 이후 유성 및 온양온천에는 인근 도시로부터 일반욕객들이 몰려와 성시를 이룬다는 소식.

도고온천 = 충남 아산군 도고면 기곡리에 위치. 온양에서 12km거리인 이곳은 신라시대부터 약수터로 널리 알려졌던 곳. 옛날에는 수온이 40도씨였으나 요즘은 30도씨로 떨어졌다. 서울에서 관광버스로 3시간 30분 거리로 하루에 다녀올 수 있으나 숙박시설이 불편한 것이 흠이다. 목욕료는 단체의 경우 1인당 150~200원, 독탕은 1,500~2,000원. 1일 관광회비 2,050원

‘청수장’ 개관 그 후 1971년 청수장이 문을 연다. 당시 청수장을 지켜본 마을 주민의 이야기다. “청수장은 공사를 할 때부터 봤지. 내가 58년 시집와서 몇해 안되서 청수장이 공사를 시작했거든. 그리고 1971년 개장할 때부터 우리가 맡아서 운영을 했어. 개장하고 1년 고생해서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다른사람한테 준다고 하데. 많이 서운했지. “조귀분(1971~1972 청수장 운영) 인터뷰 중에서 청수장은 71년 개장이후, 76년과 81년에 한 차례씩 증축을 했으며, 2004년 4월 청수장 문을 연 현 모씨로부터 소유권이 자녀인 ‘현 모씨 외 1인’에게로 이전된 후 공식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게된다. 목욕탕은 2004년 12월 13일, 숙박업은 2005년 10월 24일 폐업신고를 한다. 그 후 폐건물로 남아 있어 우범지역이 된 청수장을 2021년 6월 4일 아산시에서 매입하게 되고 다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출처: 아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고면 향토지, 2011)에서 도고면 기곡리 마을 주민이 사용하던 우물, 바로 유황온천 우물이 시작된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다. 학 한마리가 시냇가 가운데 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 거품이 일어서 파헤쳐 보니 유황천이 흘러나왔다. 그곳에 8평 넓이로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는데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 누렇게 변할 정도로 유황성분이 강했다. 72년 마을에 11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유황물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젖니가 나면서부터 모두 앞니가 누렇게 되었다.

청수장의 ‘유황온천 물’ 도고온천은 신라시대까지는 온천보다는 약수로 이름이났었기 때문에 온천수를 식수로 마실 수 있으며, 알칼리성의 수질을 유지한다. 온천수 중에서 유황천은 온천수 1kg당 1mg 이상 유황이 함유된 온천으로 황 특유의 계란이 썩는 듯한 냄새가 난다. 피부질환과 순환계 질환 개선에 좋다.

(출처:온천수 성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2010, 대전온천학회)

## [동아일보] 개발 경쟁심한 온천지대

1977년 11월 23일, 리종숙 기자

온양온천의 경우 지난 62년도까지만해도 신정관(호텔)과 국제관광호텔에서만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광천개발부음이 일어 현재는 14개 광천을 이용, 14개 업소에서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 시추탑을 세우고 작업중인 곳만해도 9개소에 이르고 있다.

62년 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광천(신천탕)을 개발한 이관희씨(58, 온양읍 온천리)는 자신이 2년간 노력끝에 광천을 개발했었지만 그때만해도 지하 50m만 파도 온천수가 풍부하게 솟아나왔으나 요즘은 1백50m를 파야 겨우 10년전보다 절반밖에 안되는 온천수가 나온다고 말하고 기존광천의 보호를 위해서는 온천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중략>

온양의 경우 최하 51도에서 최고 57도까지의 알맞은 수온에 알칼리와 라듐성분이 포함돼 위장병이나 신경통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나 요즘은 “물탕이 미지근하다”, “온천수를 뽑아내 다시 데워 쓴다”는 등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무계획한 온천수 개발이 빚은 결과라고 온양읍민들은 개탄하고 있다.

유항온천으로 이름난 아산군 도고면 기곡리 도고온천도 지난 70년도까지 황영진씨(52)의 도고온천대중탕 1개소뿐이었으나 지난해까지 청수장여관이, 올해에는 도고관광호텔이 들어서면서 물을 나누어 쓰고 있으며 이밖에 3개소에서 시추작업을 벌이고 있다.

황씨는 “도고온천의 수온은 28도에서 32도 밖에 안되지만 유황성분이 섞여 피부가 약하거나 소화가 안되는 사람들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고 있지만 앞으로 대규모 광천개발이 계속될 경우 현재의 수온이 유지될지 걱정” 이라고 말하고 달걀썩는 듯한 냄새가 풍기는 독특한 도고온천의 보존을 위해 서온천법을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온천법 제정

[온천법]은 1981년 3월2일 제정되었으며, 2008년 12월 26일 시행되어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온천전문 검사기관의 등록, 보양온천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온천의 이용허가,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령입니다.

## [조선일보] 온천수가 말라간다

1980년 2월 22일, 이우명 기자

온양,유성도고,덕산

70년대 개발 붐타고 마구 퍼올려

2백여m를 파도 10년전의 절반도 안나와 이용 업소 늘어 경쟁치열·온천법 개정 시급

온천수가 모자란다. 온양 유성 도고 덕산등 도내 4개 온천은 지난 10년간물을 너무 많이 퍼 썼기 때문에 바닥이 나고 있다. 온양온천의 경우, 지난 62년까지만 해도 관광호텔과 신정관에서만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온천수 개발 붐이 일어 이제까지 33개의 온천정(정을 뚫어 1백여개소의 호텔,여관을 비롯 심지어는 세차장에서까지 온천수를 써왔다.

지난 62년 해방 후 최초로 온천정 개발에 손을 댄 이관희씨(61·신천탕주인·온양읍온천리)에 따르면 그 당시만해도 지하 50m만 파도 온천수가 풍부히 솟아나왔으나 요즘엔 2백여m를 파도 10년전에 비하면 절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미 20여군데의 온천정은 온수가 나오지 않아 사용치 않거나 아예 폐쇄됐다. 현재 온양에서 하루에 뽑아 올리는 온천수는 12군데에서 6천여t.

평일에는 6천여t으로 그럭 저럭 버틸 수 있으나 사람이 물리는 주말엔 달리는 형편.

이때문에 제한급수가 불가피하고 업자 간의 물량확보 경쟁도 치열 할 수밖에 없어 5마력짜리 모터를 30마력짜리로 대체,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군 당국에서는 온천수 확보 경쟁에서 파생되는 부작용과 온천수의 낭비를 막기위해 온천정소유자 회의를 소집, 온천수 사용자의 절수 운동을 벌이는 한편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대중목욕탕과 숙박업소에 우선권을 주고, 세차장 등 불필요 업소에 대한 제한 급수를 단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없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이같은 온천수 부족현상은 도고온천과 덕산 유성온천도 예외일 수 없어, 도고온천도 지난 70년까지황영진씨(52)의 도고 온천(대중탕) 1개소 뿐이었으나 지금은 온천정만도 12개에 달하고 있으며, 대덕군에 있는 유성온천도 9개소의 온천정이 풀가동하고 있어 물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온천수 보존을 위해 10여년간 관심을 갖고 온천 실태를 파악해왔다는 아산군청 조중국씨(53·사회과장)는 온천수 낭비를 막기 위해선 온천정 소유주들이 자진 협조해 적정량의 물을 뽑아 올리고 균등하게 업소에 분배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이행시킬 온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수장 아카이브 프로젝트

1 관리동 창고

2 보일러실

3 단체숙박동

4 여관동

5 여관식당동

6 목욕탕

7 정자

## 관리동 창고

서쪽방향의 도로, 청수장 건물의 밖이다. 직원 출입구 역할을 했을 법한 단칸짜리 알루미늄 문을 만났다. 그것도 원래는 자기 자리가 아닌 듯 삐걱이며 벽과 문사이의 틈을 만들고 있다.

“건물이 무너질 수 있으니 벽을 짚거나 기둥을 건드리지 마세요.”

청수장을 안내하던 아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의 말에 흠칫 놀라 건물의 천장을 살핀다.

시멘트 외벽만 남은 3평남짓 건물. 열쇠 보관함으로 보이는 나무함이 펼쳐진 채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면 이곳이 직원들이 사용했을 수도 있는 관리 사무실이었거나 청수장 건물 외부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관리하던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관리동(추정) 바로 옆, 단층의 창고로 보이는 작은 공간. 문은 사라지고 뼈가 드러난 천장에는 배관용 파이프가 가득 자리하고 있다. 콘크리트 벽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한쪽 벽, 시멘트를 붓다 만 바닥. 한 겹의 슬레이트 지붕 속에 모습을 드러낸 곳.

낮인 데도 컴컴해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내부는 검은 재의 먼지와 부서진 배관통만이 덩굴고 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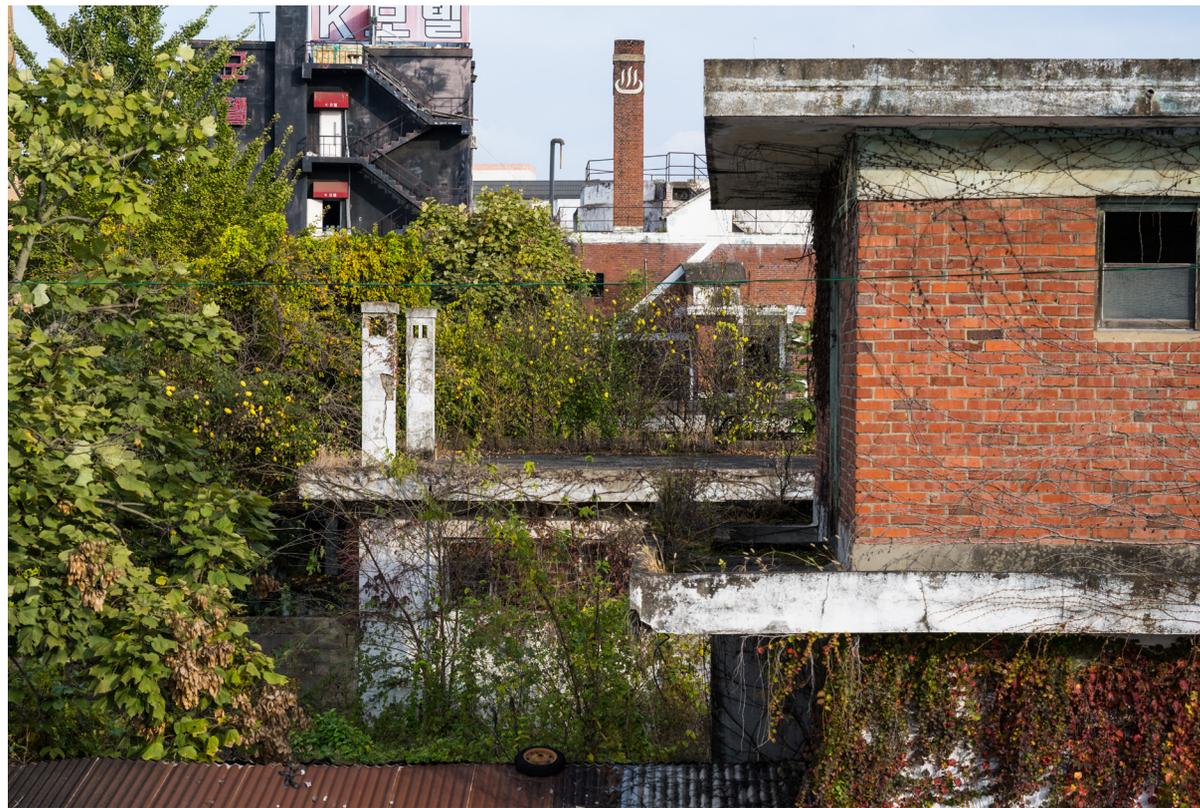
텅 비어 있는 공간과 마주하고는 왠지 더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대부분의 창고에는 사용하지 않은 물건, 추억과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물건들이 한 두개쯤 버려져 있는 경우가 있다. 청수장이 사람들로 붐비던 그 시절, 이곳 역시 많은 물건들이 보관되어 딱 차 있었던 공간이 아니었을까?





곡로 84번길  
Gok-ro 84beon-gil 28





















# 보일러실

천장에 녹슨 형광등 하나, 빛이 들어오는 정사각형의 구멍.

바닥 한쪽에 누워있는 보온재 속의 굵은 배관들.

누군가 말해주지 않아도 보일러실임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시작된 온수가 여관동에 따뜻한 물을 보내고

객실의 바닥을 데우느라 온종일 뿜뿜거리는 소리와 함께 씩씩이 움직였으리라.

천장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빛을 들이고 열기를 내보내며

살아 움직였을 이곳을 상상해본다.



















## 단체숙박동

독립된 건물에 큰 방 두개.

입구 한쪽에 자리한 세면대, 건물 밖 뒤쪽에 있는 화장실

회사에서 단체로 청수장을 방문한다면.

혹은 대학생들이 엠티(MT)를 위해 청수장을 방문한다면.

이곳에서 '독립된 공간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며 추천했을법 하다.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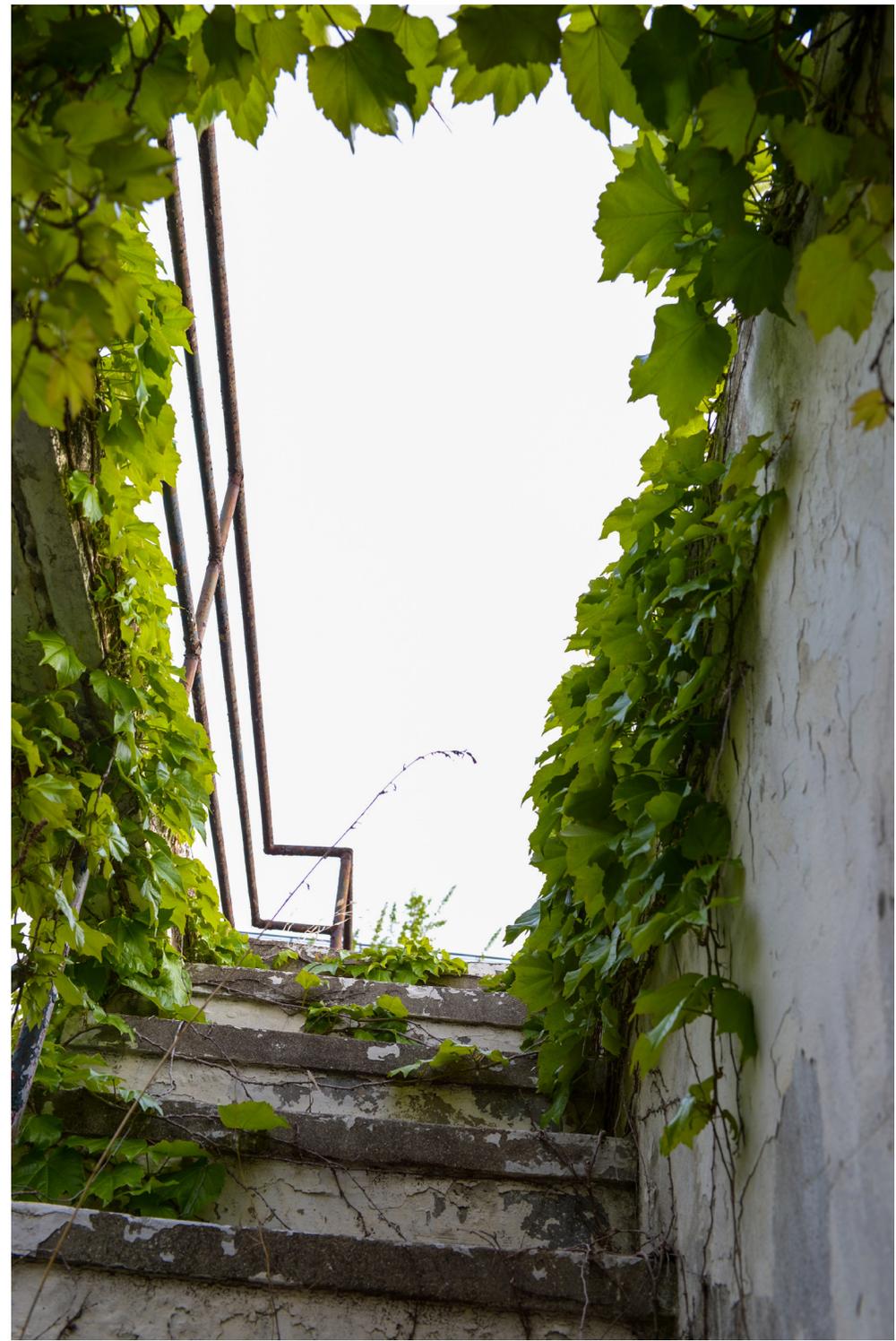
Self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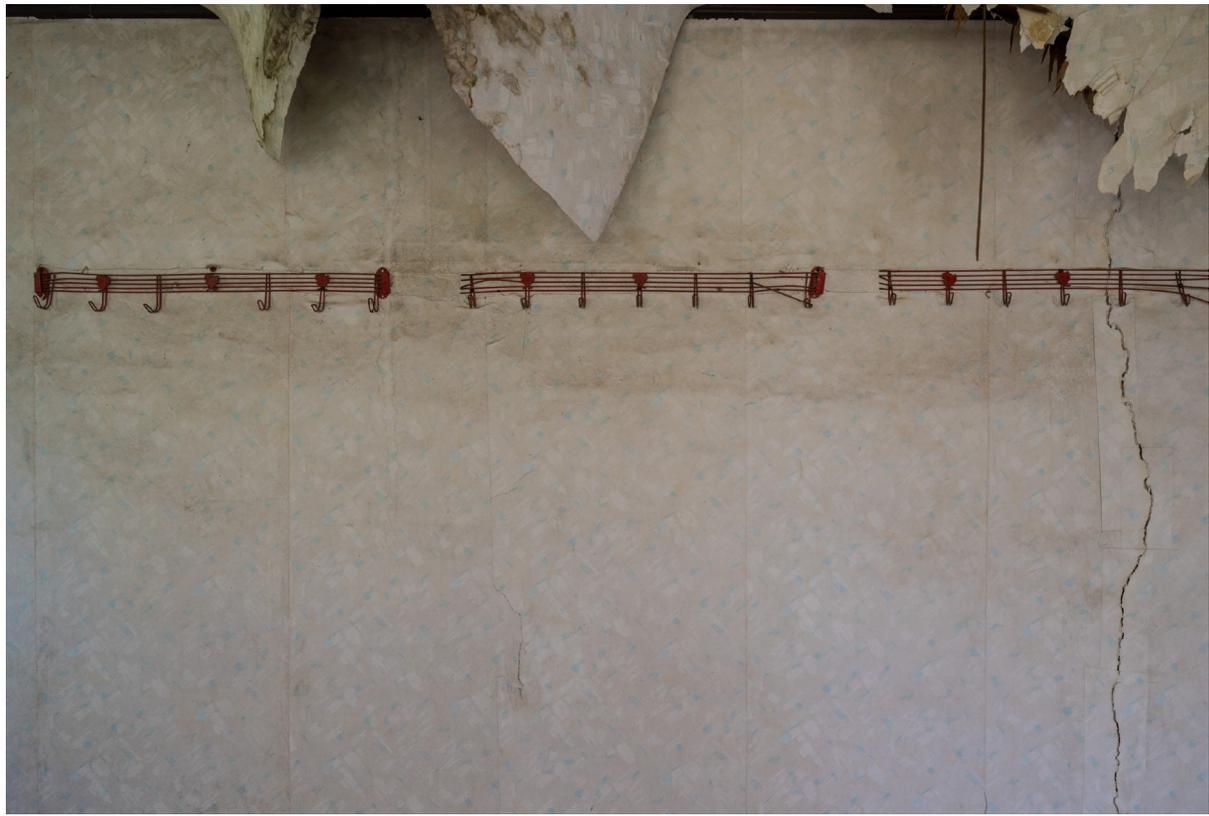














## 여관동

붉은 벽돌의 2층건물

1층에는 가정집의 고급 현관문이 달려있는 주인집 내실과  
욕조와 양변기, 세면기가 있는 화장실이 딸린 객실 8개가 있고

2층에는 넓은 가족탕을 포함해서 화장실이 딸린 객실 10개가 있다.

312호라는 이름을 가진 2층의 객실문을 열어본다.

흰색의 넓은 타일로 조화를 이룬 화장실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곳을 다녀가서 피부가 좋아지고 환하게 미소를 나누었을  
가족, 친구, 이웃의 따스한 마음을 떠올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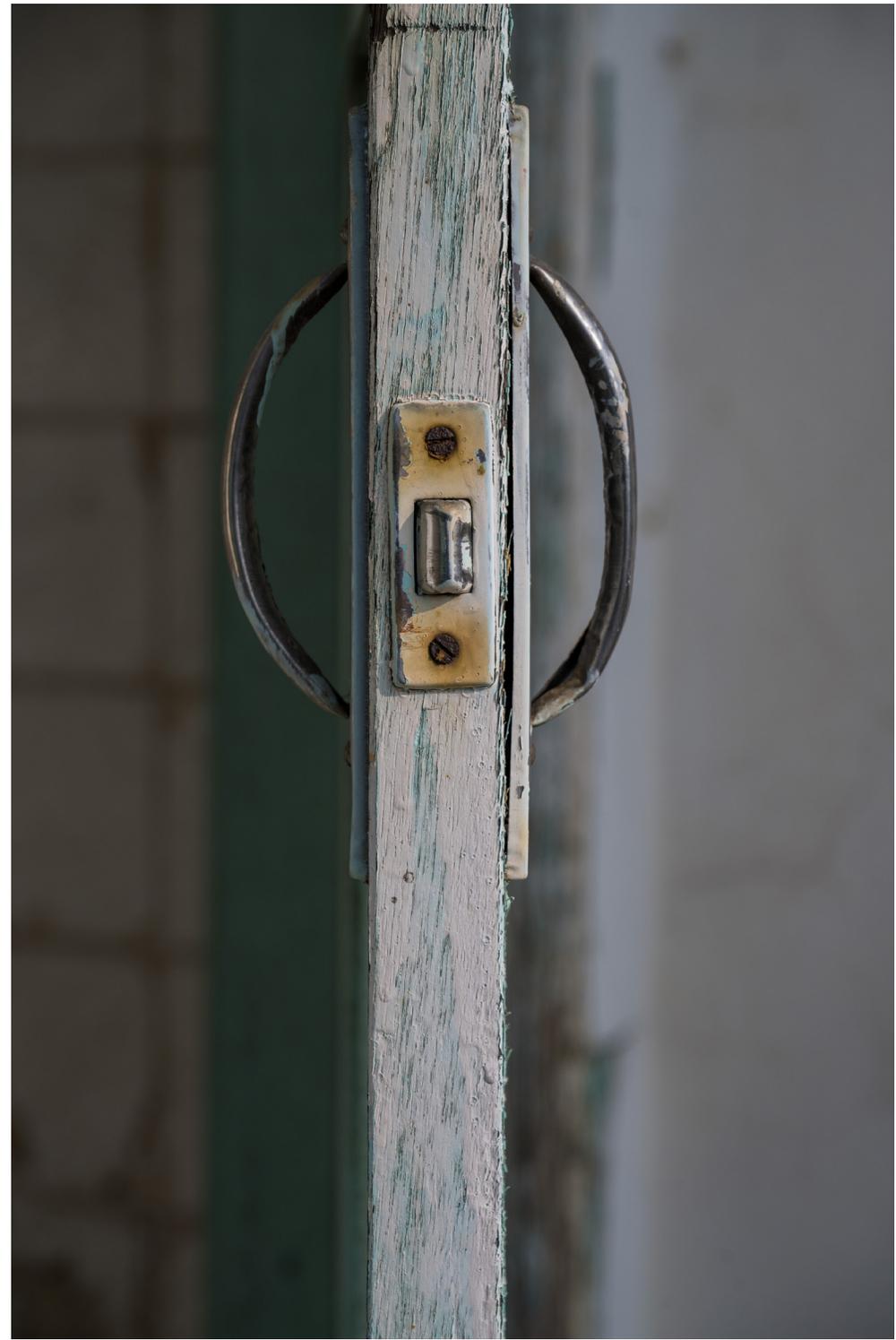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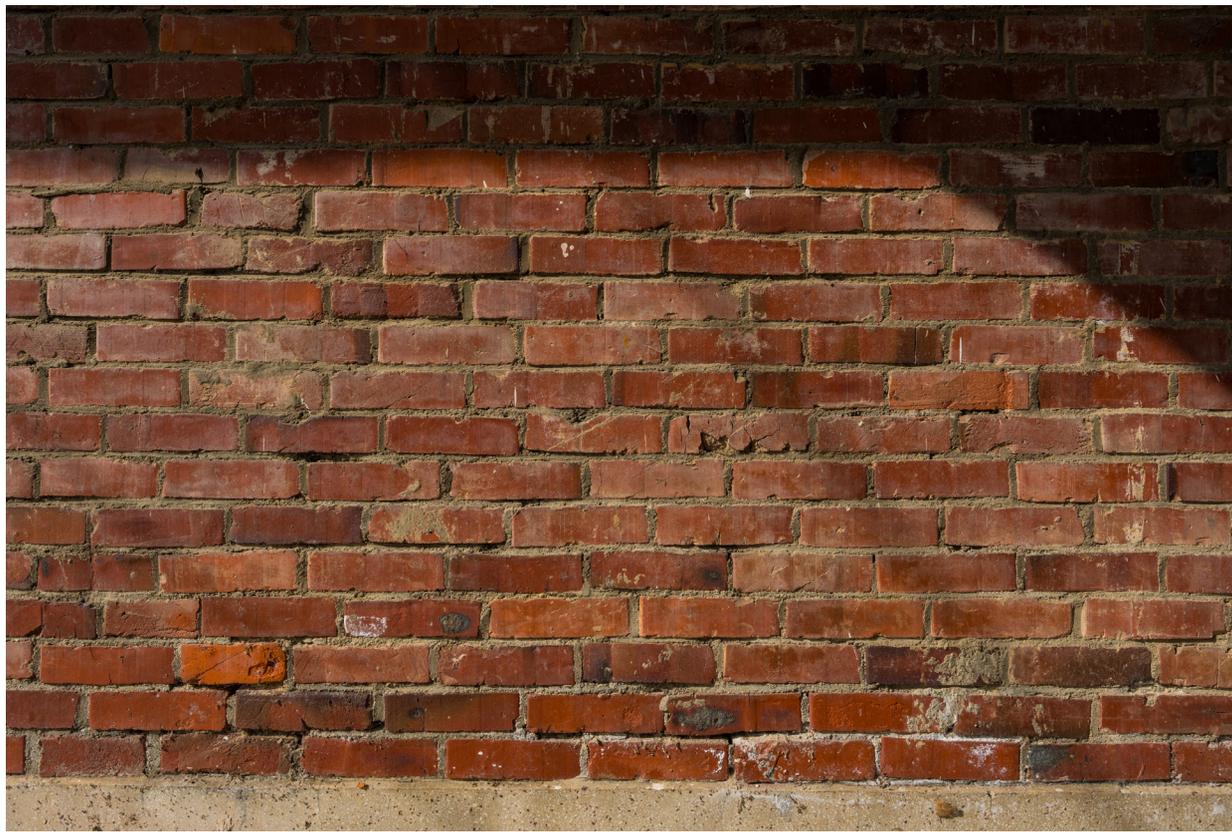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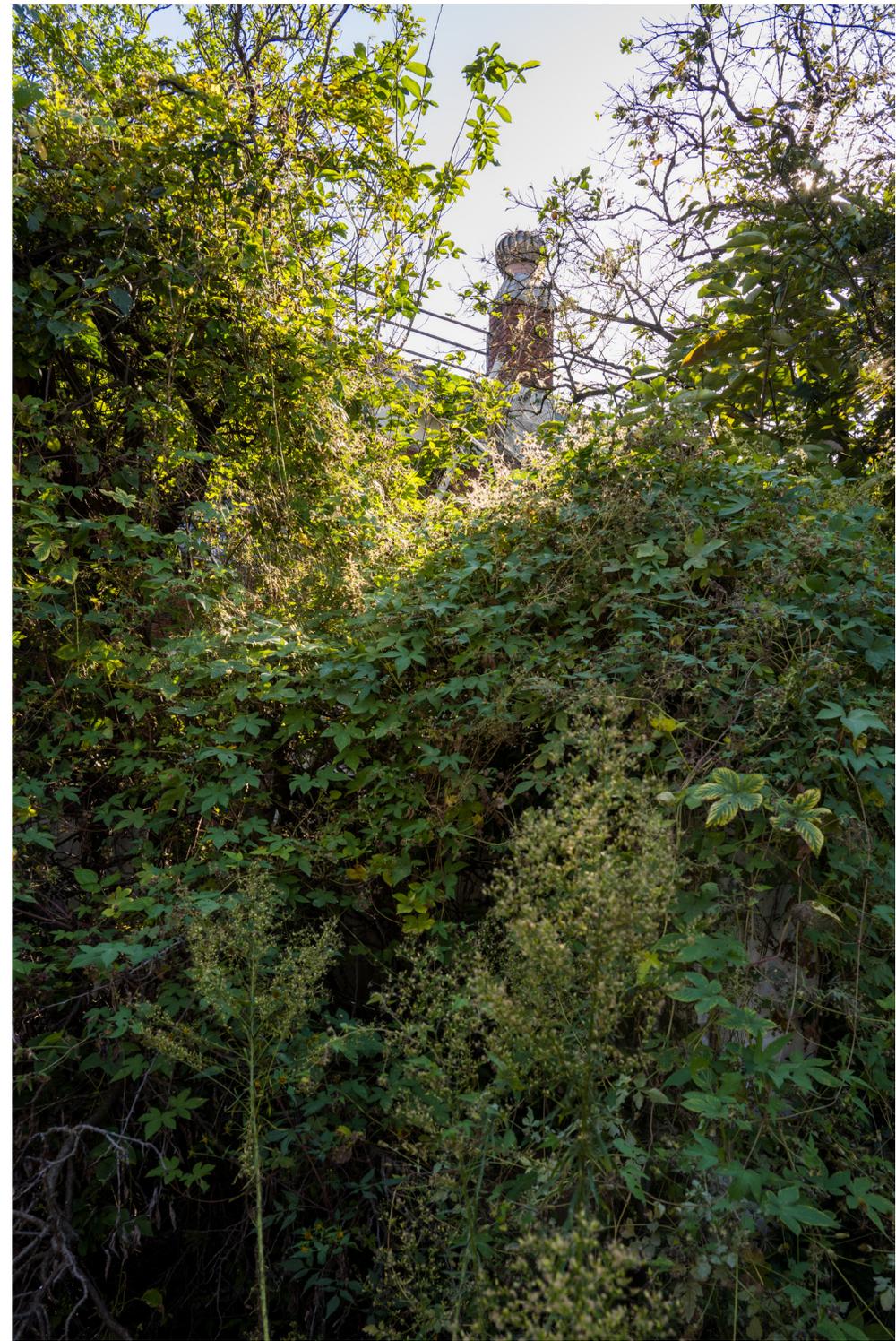














# 여관식당동

흰색 단층의 정사각형 모양을 한 청수장에서 가장 큰 건물.

네모(‘모자’ 모양) 구조 가운데에는 식당이 있고 복도를 따라 14개의 방이 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좌우로 공용 세면대와 화장실이 있다.

네모 구조의 복도를 따라 돌아 보면 미로 찾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수학여행 온 친구들, 유황온천탕에 목욕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관광객들,

광장을 닮은 식당주변으로 사람들이 붐볐을 모양을 떠올려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발자국 소리, 뛰는 아이들을 꾸짖는 어른들의 목소리,

저 멀리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음악처럼 울리는 듯 하다.

<정문 현관 옆의 약수대>

“청수장의 유황온천 물은 먹기도 했어요.”

청수장에서 근무했던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먹었을까 고민하던 때,

여관식당동의 현관 우측에 남아있는 ‘식수대’의 흔적을 발견했다.

모양의 일부만 남아있었지만 ‘약수’라는 글자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여관식당동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황온천수’를 먹게 해 주었던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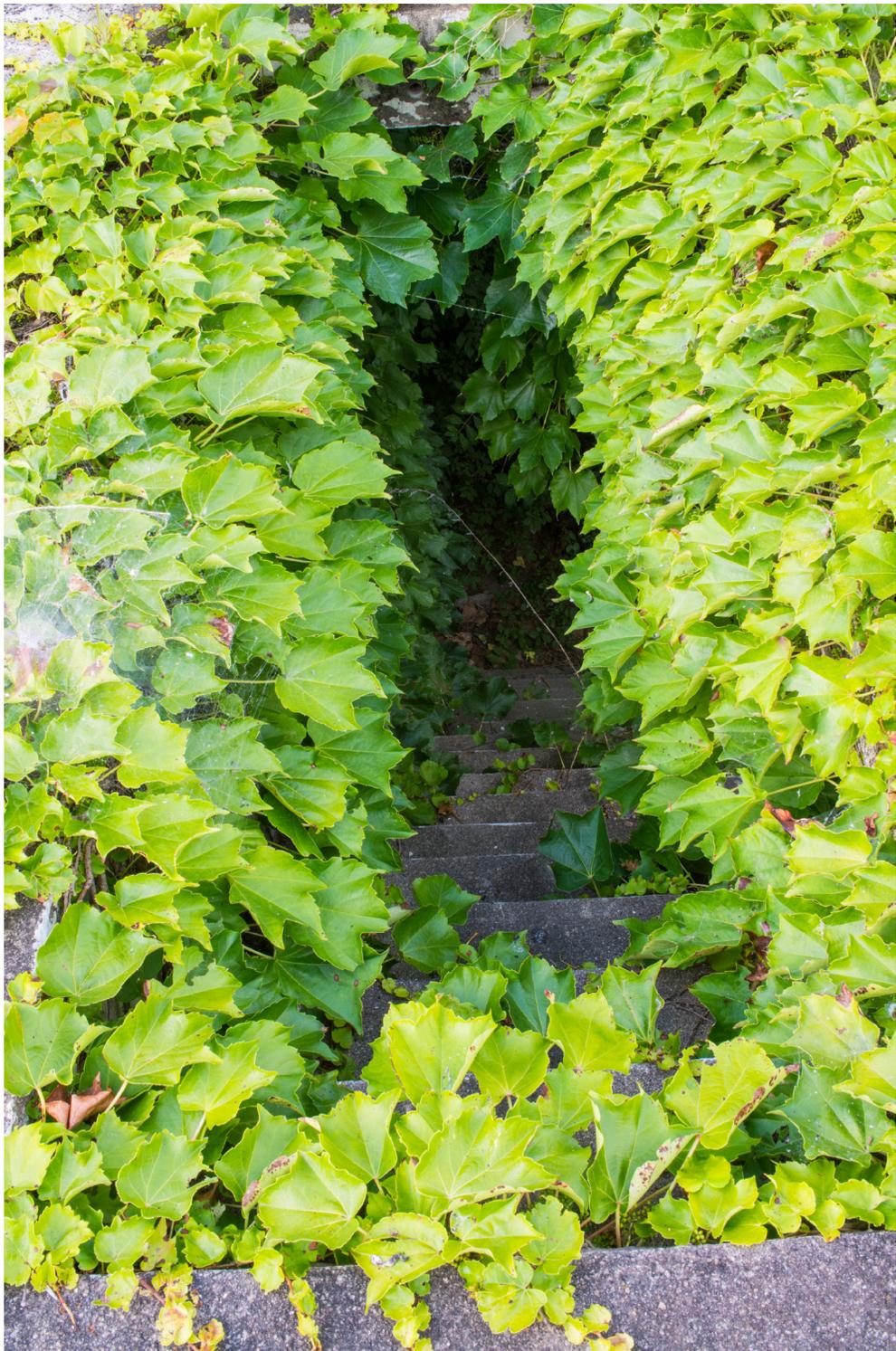














여관 식당  
입구

# 목욕탕

영업시간 오전 5시 30분 ~ 오후 8시 30분

청수장 목욕탕

여관식당동 바로 옆에 위치한 목욕탕이다.

1층은 지하를 파서 층고를 높인 보일러실이 위치하고

2층이 여탕, 3층이 남탕이다.

2층과 3층의 목욕탕 구조는 같은데 여탕에만

라는 안내판이 거울 옆에 붙어 있다.

“때밀어 드립니다. 지압 마사지 해드립니다.”

여성의 평균 목욕시간이 남성의 두배가 걸린다고 하는데

함께 왔다가 일찍 목욕을 마친 남성분들은 어디서 시간을 보냈을까?

청수장 주변으로 자리했을 슈퍼에서 음료수를 사 먹었을까?

기념품점에서 선물을 골랐을까?

혹은 다방에서 계란노른자 띄운 쌍화차라도 한 잔 하셨을까?





7030 가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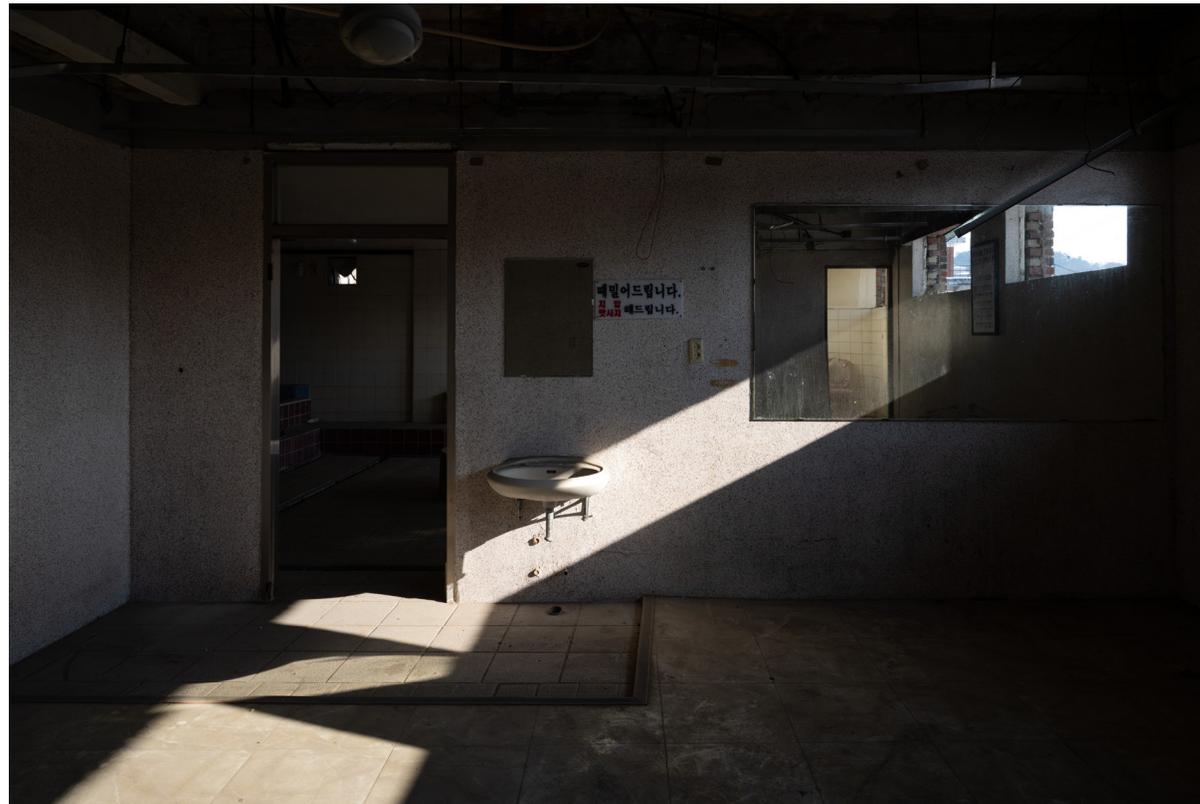
모텔

7030 가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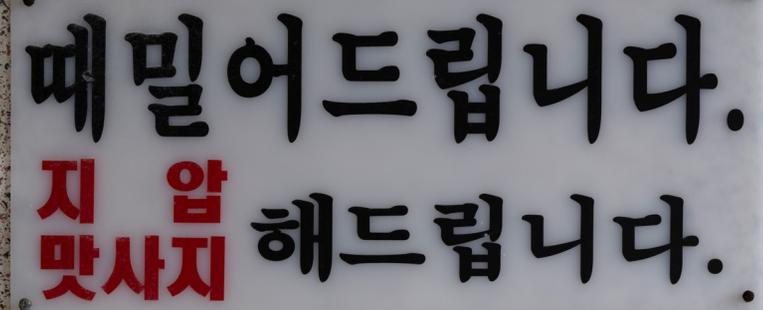












때밀어드립니다.  
지압  
맛사지 헤드드립니다.



물을 아껴쓰시다  
(사용후 잠그어주세요)





# 정자

청수장 북쪽 철문 출입구를 따라가면 도로변에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고  
그 위에 네모반듯한 사모정의 정자가 보인다.

사방이 창으로 나 있는데 실내에서 보면 한옥의 문 창살로 창문을 달아  
운치를 더했다.

사람의 흔적이 없었던 시간동안 쌓인 먼지를 틀어내고  
정자에 앉아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고 픈 심정이다.

마치 신선 놀음을 하는 기분이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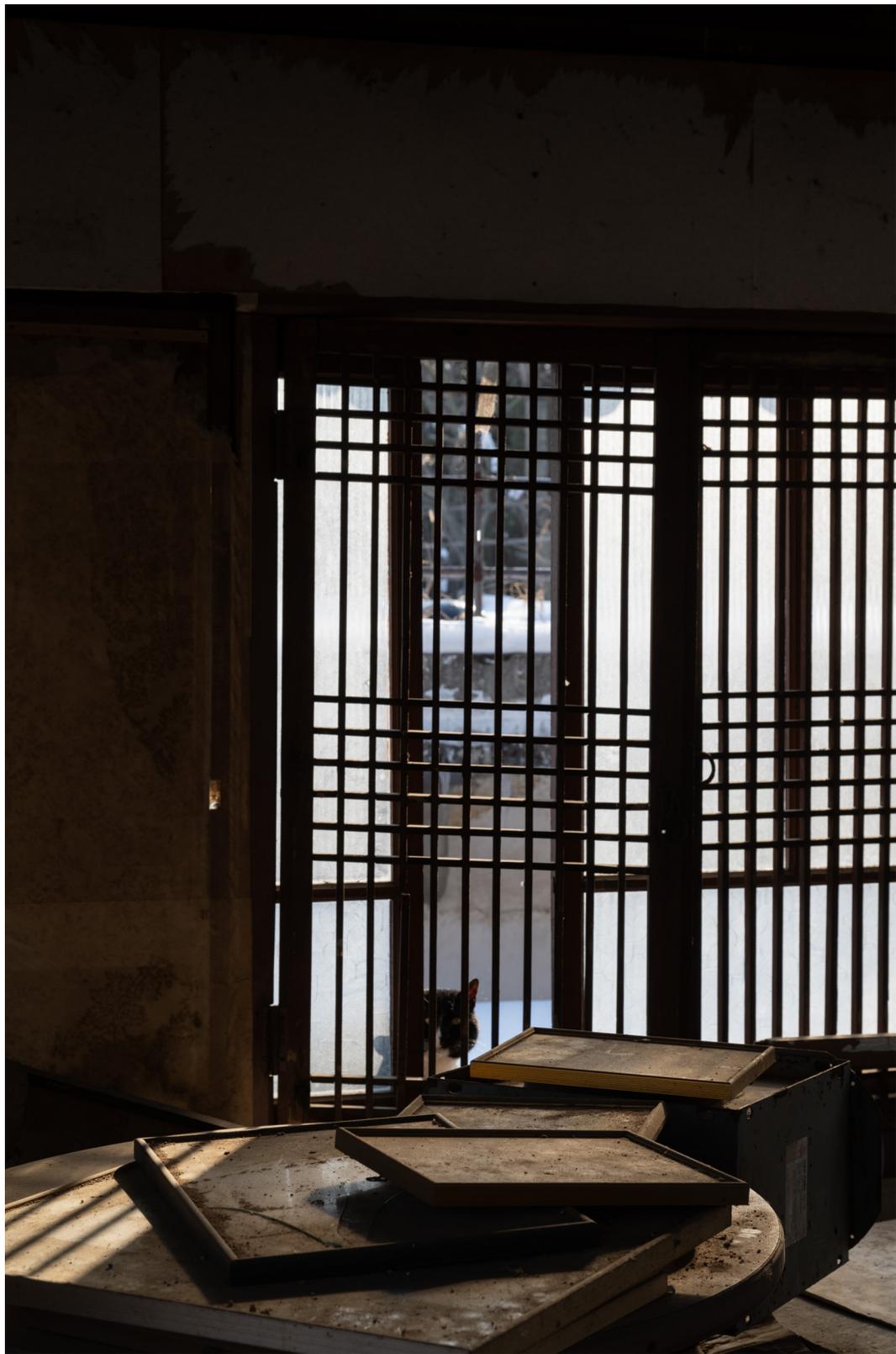














## 청수장의 마당

사람들이 붐비던 그 시절은

청수장 방문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최고의 인기장소가 아니었을까!

사람들의 발걸음이 사라진 지금은

들풀이 주인을 대신해 우거져 자라고 있다.

건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쉼터로

우리들의 삶에 활력을 주기 위해 기다리는

청수장의 마당.

















## 구술채록 인터뷰 #1

옛 슈퍼

“여기서 옛날에는 슈퍼를 했어.”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유리 현관문의 입구를 보니,  
과거 슈퍼의 흔적으로 보이던 광고판이 붙어 있었다.

한 달 전에 바쁜 걸음을 옮기던 어르신께 잠시 인사를 드렸었고  
눈 덮인 겨울 하루, 다시 찾았다.

철문은 잠겨 있었고  
다음에 오면 인터뷰도하고 사진도 찍어주겠다  
말씀하셨던 어르신은 대답이 없었다.

계세요?  
안에 계세요?

어르신! 지난번에 찾아 뵙고 인사 드렸던 사진작가입니다.  
잠시 뵙고 말씀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똑똑 ... 똑똑똑  
안에 계신 것 같은데...  
똑똑 ... 똑똑..  
계세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후  
다시 찾아와 유리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답이 없었다.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의 흔적을 발견하면 그곳에서 살았던 분들을  
만나고 싶어진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다시 방문해야겠다.

## 구술채록 인터뷰 #2

조귀분  
여, 1936년, 신창면 신곡리 출생

58년에 결혼하고는 기곡리로 와서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청수장하고 내가 인연이 참 깊어.

시집오고 얼마 안 되었는데 청수장이 공사를 시작 했어.  
7년에 개장을 하고는 서울 양반이 운영을 안 하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데.  
친정 언니한테 쌀 30가마를 빌려 다가 보증금으로 넣고 운영을 했어.

우리가 목욕탕을 운영할 때는 남탕에 한 명, 여탕에 한 명씩 직원을 뒀는데  
아저씨는 목욕탕에 있는 매표소에서 자면서 일 했어.  
목욕탕 문 여는 시간이 새벽 5시반이었거든. 그리고 여관이 있으니까  
밤늦어도 문닫는 시간 없이 일을 했지 뭐.

그런데 1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리를 좀 잡나 했더니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하데. 많이 서운했지.

청수장이 잘 되고 이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는 도고기차역부터  
여기까지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서 걸어오던 때도 있었어.  
장관이었지.  
여관에는 방이 없어서 손님들이 잘 곳이 없을 정도였다니까.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맞어. 온천물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더만.  
내가 젊어서는 아주 이뻐거든.”

지금도 고우시고 이쁘세요.  
“피부가 좋아서 그렇지.”

## 구술채록 인터뷰 #3

김석조, 김인순 (부부)

김석조(부군), 1945년 도고 출생

김인순(부인), 1949년 덕산온천 출생

도고에서 나서 계속 여기서 살고 있지 뭐.

60년대 초반에는 여기를 ‘영창여인숙’ 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이 운영했는데 객실3개를 두고 영업을 했었어.

그게 기곡리 최초의 여인숙이었지.

그리고 70년도에 결혼을 하고나서 ‘중앙상회’라는 기념품가게를 운영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기념품을 파는게 장사가 되더라고. 그때는 관광버스가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올 때였거든.

기념품이래야 별거 없었어.

술 달린 노리개나 복조리, 인형 같은 것도 팔고 수건이 많이 팔렸어. 관광버스로 손님들이 오면 꼭 수건을 단체로 사 갖고 갔거든.

71년에 청수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 청수장 옆에 있는 이 집을 76년에 지었어.

그리고는 78년에 ‘모란식당’을 열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네..

그때는 밤새 술 마시고 놀고나서 속을 달래려고 해장국을 찾는 손님들이 아침마다 가게 앞에 줄을 섰었어.

지금은 청국장을 주로 팔고 있어. 그것도 점심 때 잠깐 장사하고 농사일하느라 식당문을 닫을 때도 많아.

그때는 재미있었지. 동네가 시끌벅적했거든.

낮에는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고 갔고 밤이 되면 숙소안에서 음악을 틀어 놓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랬다니까.

재미있을 때였지.

아내가 모란꽃을 좋아해서

‘모란식당’ 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결에 계시던 아내분이 더 수줍어 하신다.

청수장의 물이 좋아서 피부가 좋다며,

“어때? 나이보다 동안이지?” 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두 분의 모습에서 따스한 온정을 느끼게 된다.

## 구술채록 인터뷰 #4

김영자

1941년생, 여, 도고면 신통리 출생, 80년도경 도고면 기곡리로 이주

“도고면 신통리에서 나고 자랐는데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를 갔어.

그런데 6개월만에 6.25가 터진 거야.

다시 도고면 신통리로 피난을 내려 와서 살았어.

시집?

홍성 산골로 시집을 갔는데 살기가 힘들어서 친정이 있는 여기로 또 이사를 왔어.

나이 40넘어서 왔으니까 1980년도쯤에 이리로 왔네. 그 때 오빠가 카바레를 하고 있어서 잘 살았거든.

그 때는 좋았지. 관광버스가 하루에 스무 대 넘게 매일 들어오니까 그 버스 위에 올라가서 과일도 팔고, 샌 베테도 팔고 그랬어. 한 십년 그렇게 좋게 장사를 했다. 그러다가 IMF오고 관광버스도 줄고 온천 하러 오는 사람들도 줄었지 뭐. 그래도 식당은 되겠다 싶어서 ‘동해식당’이라는 해물탕집을 차렸어.

그 때 여기 사람들이 식당을 많이 차렸거든.

남편이 일찍 가고 나 혼자 애들 셋을 키워야 하는데

청수장이 있는 이곳 도고온천이 우리를 살게 해 줬지 뭐.”

어르신은 표정은 밝았다.

그 시절을 추억하며 웃기도 하고 잠시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하는 모습에서 사람 많았던 시절,

작고하신 부군과 함께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시는구나 싶어 함께 코 끝이 시큰해져왔다.

“커피 한잔 하고 가.”

따뜻한 김이 오르는 커피잔에서 다정한 마음이 느껴진다.

“나가는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고. 또 놀러 와~”

현관을 나서는 우리들을 마중하는 모습에서 사람 그리움의 마음이 느껴져 몇 번을 뒤 돌아본다.

## 구술채록 인터뷰 #5

이종식

남, 1938년생, 온양4동 방축동 출생, 73년 결혼 후 기곡리 거주

“어르신, 트로피 받으셨네요?”

친구분과 함께 아코디언 연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 천안시에서 상을 받았다며 씩스러워 하셨다.

결혼한 후부터 이 곳 기곡리에 터를 잡고 살고 계신다는 어르신은 청수장이 만들어지는 현장의 모습을 기억한다며 호황이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73년에 여기로 오니까 청수장은 운영 중에 있었고 파라다이스 호텔이 완공되었거든.

도고온천 붐이 일어서 관광객이 넘쳐났어.

그때는 신혼여행 손님도 많았고 수학여행으로 관광버스가 많이 몰려왔는데,

도고온천에 왔다가 현충사로 견학을 가는 코스를 좋아 했어.

숙박이 가능한 대중탕으로 청수장이 인기가 최고였지 뭐. 온천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으면 하루에 대실 손님을 4~6번에다 숙박손님까지 따로 받고 그랬다니까.

청수장은 유향온천 물이라 특히 더 인기가 많았어. 파주시 문산읍에 살던 사람이 피부병이 낫지 않아 수소문 끝에 여기 청수장을 방문했는데 피부에서 진물이 나고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대중탕에는 들어가지도 못해서 청수장의 가족탕에서 20일 넘게 숙박하면서 유향온천 물을 먹고 피부를 씻고 했더니 아이구 한달만에 싸악 나았다잖아.그 뒤로 청수장의 물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어.

그때는 유향온천 물을 동네사람들이 많이 먹었어.

계란노른자 냄새가 온 마을에서 났는데 우리는 잘 몰랐어.

그리고 그 물을 먹어서 그런지 애들 이빨이 유독 더 누랬어.

## 구술채록 인터뷰 #6

신달우

남, 1959년,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출생

삶은 계란과 추석 명절세고 남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 십원이면 ‘사이다’, ‘눈깔사탕’을 먹을 수 있는 날 부러울 것 없는 하루가 갑니다.

그가 운영하는 식당의 벽면에 붙여져 있는 나무액자에 새겨진 시

“가을 운동회” 중 한 구절이다.

식당 벽에 걸려있는 여러 편의 시를 보고 “시인이시네요.” 했더니

“등단한 것도 아닌데 뭘” 이라며 씩스러워 하신다.

예산군 대술면에서 나고 자라 초중고를 나올 때까지 도고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군대, 학교 그리고 직장생활로 10년의 타향생활 후 87년 다시 이곳 기곡리로 내려온 후 진덕산업 인사와 장으로 10년의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1년 ‘일미식당’을 열었다.

청국장과 찜밥이 인기 메뉴인 일미식당은 단골이 많은 맛집으로 소문나 있다.

‘일미식당’은 70년대초 아버지가 운영했던 식당의 이름입니다.그때는 청수장의 맞은편에 있는 ‘온천정육 식당’에 ‘일미식당’이 있었거든요.온천 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았고 71년에 청수장이 개장하면서 장사가 정말 잘 되었죠. 저도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곤 했어요. 90년대 이후 관광객이 줄기 시작하더군요. 관광객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IMF도 있고 해외여행 자율화에 전국의 관광지가 늘어나는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유라고 봅니다.물론 도고온천에 볼거리가 부족한 것도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죠. 70 80년대의 청수장과 함께 부흥기를 이루었던 이곳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기곡리가 많이 안타깝지요.

그 때는 여기 하천주변이 주차장이었는데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청수장은 유향온천 물이 유명세를 타면서 전국에서 찾아와 오랫동안 머물다 가는 곳으로 피부병을 고치기도 하고 위장병을 고치기도 하는 휴양온천으로 우리 이웃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더 지금의 모습에 마음이 안 좋죠.

과거의 추억을 시로 담아내고 있어서 일까?

그의 시에는 풍요로움과 함께 세상을 꼬집는 풍자와 그리움이 묻어난다.

그의 바람대로 서민의 마음을 달래 주던 청수장의 옛모습이

오늘 다시 우리를 위한 공간으로 사람들을 품어 주기를 기대해본다.

## 구술채록 인터뷰 #7

이기재

남, 1962년, 도고면 신언리 출생

내가 목욕하는 걸 무척이나 좋아하거든.

그게 어릴 때부터 목욕탕을 자주 다녀서 그런 것 같아.

도고면 신언리에서 나서 도고온천국민학교(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청수장을 추억해 주셨다.

71년 청수장을 개장하고 나서 좋았지.

그때는 시골에서 뜨거운 물이 귀할 때였으니까.

집에서 목욕한다고 물을 끓이면 나이 순대로 물을 쓰던 시절이었어.

집 집마다 연탄이나 나무로 군불을 땠 때거든.

그 때 국민학교에 6개 반이 있었는데 한 반에 70명씩 다니고 그랬어.

졸업생이 430명이나 되었지.

그 애들이 청수장에서 목욕한 거야.

우리는 청수장이 생겨서 한달에 한 번은 목욕을 갔던 걸로 기억해.

목욕탕 가는 걸 좋아 했어.

그때 여기 청수장 물은 유황온천 물이어서 가까이 가면

찜뽕집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연기도 나고

계란노른자 냄새가 어마어마 했어.

냄새는 안 좋아도 그게 피부에는 참 좋았던지

그 시절 청수장에 목욕하러 다녔던 사람들이 다들 피부가 좋아.

# 청수장 주민의 기록

사진제공 신달우



도시기억아카이브

# 청수장 아카이브 프로젝트

## 발행

모멘트(MOMENT)

## 발행일

2023년 12월

## 사진

김선홍 김인숙 박승규

## 글

정진

## 출판

아트랩463



\* 본 사진집은 아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